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마음에 쓰기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44장 '마음에 쓰기', 471(추정)~48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두 장에서 다룬 '사람을 통한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람을 계시의 도구로 쓰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은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방식, 곧 구원의 말씀이 신자의 마음에 심기는 일을 다룹니다.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주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이름이 예수님께 그대로 쓰이고, 세례받은 백성과 온 세상 위에 놓인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어 '마음에 새긴 말씀'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바람이 새 언약에서 이루어져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계시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함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객관적 측면은 자연과 성경, 주관적 측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앎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계시의 최종 목적지라고 결론짓습니다.

📜 절별 정리

(원문에 소제목이 없어 논증 단락을 따라 여덟 절로 나눴습니다. 절 제목은 정리자가 붙였습니다.)

📜 1. 가장 친밀한 계시, 그리고 '이름'

프레임은 42·43장의 '사람을 통한 계시'를 이어받아 시작합니다. 사람을 통한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언약적 임재란 하나님이 약속으로

가장 친밀한 방식, 곧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백성의 마음에 심기는 일입니다. 그리로 가는 길목으로 프레임은 '이름'을 꺼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은 주로 부르기 위한 표시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이름은 태어날 때의 사정이나 부모의 바람처럼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 속 어떤 사람의 자리를 보여 주시려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또 백성을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1. 이 장은 '사람을 통한 계시'의 마지막 단계다
2. 가장 친밀한 계시는 마음에 심긴 구원의 말씀
3. 성경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담았다
4. 새 이름은 구원 계획 속 자리를 보여 준다
5. 하나님은 백성을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신다

> **창세기 17:5**
>
> 아브람→아브라함: 새 이름이 구원 계획 속 사명을 드러낸다
>
>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창세기 32:28**
>
> 야곱→이스라엘: 같은 예, 새 이름이 새 정체를 보여 준다
>
>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이사야 62:2**
>
> 구원의 약속은 곧 새 이름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
>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 **요한계시록 2:17**
>
>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사야 43:1

하나님은 백성을 이름으로 아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5:3-4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신다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 2.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야훼, 엘로힘, 아돈 같은 하나님의 호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여러 겹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명예'를 말하듯 이름은 그분의 명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므로, 이 말은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셋째, 이름은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심판합니다. 신적 속성을 지니고 신적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곳이 됩니다. 다섯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란히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프레임의 앞선 논증(8–11장)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1. 하나님의 이름 =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전체
2. 그래서 이름은 '말씀'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3. 이름은 예배받고, 신적 일을 한다 → 하나님 자신
4. 이름이 머무는 곳 =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5. 제3계명: 이름을 그분 앞에 서듯 경외하라

> **잠언 22:1**
> 이름 = 명예, 이름이 그 사람의 평판을 대변한다
>
>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 **사무엘상 12:22**
> 하나님이 자기 이름(명성)을 위해 행하신다
>
>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 **시편 7:17; 9:2; 18:49**
> 이름을 찬송함 = 하나님을 찬양함
>
> **시편 7: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
> **시편 9: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
> **시편 18: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 **시편 29:2; 34:3; 61:5**
> 이름에 영광, 이름을 높임, 이름을 경외함 → 이름은 예배 대상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34: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61:5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시편 20:1; 33:21; 54:1

이름이 보호하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구원한다

시편 20: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33:21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시편 54: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72:17; 135:13

이름은 영원하다(신적 속성)

시편 72: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135:13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48:10; 111:9

이름은 땅끝까지 미치고 거룩하고 지존하다

시편 48: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시편 111: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시편 23:3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30:27

이름 자체가 와서 심판과 복을 가져온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신명기 12:5, 11, 21; 14:23-24

이름을 두실 곳 = 특별 임재의 장소

신명기 12:5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 12:11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신명기 12:21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신명기 14:23-24 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성전에 이름을 두심 =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열왕기상 8: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9: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열왕기하 23:2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출애굽기 33:18-19

영광을 보여 달라는 모세에게 이름을 선포하심 → 이름 = 영광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시편 102:15; 이사야 59:19

이름과 영광이 나란히 쓰인다

시편 102:15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사야 59: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출애굽기 23:21

이름이 천사 안에 있다 —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출애굽기 20:7

제3계명(저자는 장절을 적지 않음): 이름을 경외로 부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 3.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프레임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 주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습니다. 구약이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방식 그대로 신약이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공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구약에서 '그 이름'이 여호와를 대신하는 말이었듯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만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께 똑같이 적용합니다. 요엘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동 예배의 시작이었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세례는 성부·성자·성령의 '한 이름'으로 받습니다. 성자가 성부와 같은 자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1. 신약은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처럼 쓴다
2. 이것이 그리스도 신성의 강력한 증거다
3. 구원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 하나뿐이다

5. 세례는 삼위의 '한 이름'으로 받는다

사도행전 4:7

공회의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10

베드로의 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12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 예수 이름의 절대적 권세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5:41

'그 이름'이 예수를 대신하는 말로 쓰인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9:21; 22:16

같은 용례, 예수의 이름을 부름

사도행전 9: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도행전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이사야 45:23

원래 여호와께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말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로마서 14:11

바울이 이사야 45:23을 하나님께 적용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10-11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 → 예수 = 여호와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엘 2:32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10:13

바울이 요엘서를 인용해 예수의 이름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 4:26

셋의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 공동 예배의 시작

고린도전서 1:2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야고보서 5:14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한다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태복음 28:19

삼위의 '한 이름'으로 세례 → 성자는 성부와 동등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4.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

세례는 성부와 성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프레임은 곧바로 선을 긋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배받을 존재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성막에 이름이 머물렀듯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의 삼위일체 축도도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래서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을 근거로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서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까지 미칠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그 약속이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읽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름은 빌린 것, 우리는 예배 대상이 아니다
3. 성막처럼 우리가 이름이 머무는 성전이다
4.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5. 이름은 열방으로, 마지막엔 이마에까지

신명기 12:5

성막·땅에 이름을 두셨듯 우리 위에 두신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민수기 6:24-27

아론의 축도 = 이름을 백성 위에 두는 일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고린도후서 13:13

삼위일체 축도도 같은 의미(원서는 영어 장절대로 13:14로 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14:9; 이사야 43:7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

예레미야 14:9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사야 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예레미야 14:21

그 이름을 근거로 구원을 구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사무엘상 12:22

이름 때문에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모스 9:11-12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열방으로 넓어진다

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15:17-18

아모스의 약속이 복음 확장으로 성취된다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8:19

새 신자는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계시록 22:4 (각주: 3:12; 14:1)

> **요한계시록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 5. 온 세상도 이름을 지닌다 —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프레임은 더 넓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은 온 땅에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도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을 지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의 맹세 가르침을 이렇게 읽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맹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로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답하십니다. 결국 무엇으로 맹세하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이것은 프레임 자신의 해석이라고 밝힙니다). 이어 그는 이 성경신학의 흐름을 신자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계시와 임재를 모든 신자에게 두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도장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은 하나님 언약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언약 공동체 안의 반역자들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만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프레임은 각주에서 덧붙입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았지만, 영원 전에 구원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1.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 피조물도 이름을 지닌다
2. 무엇으로 맹세하든 결국 하나님 앞의 맹세다
3. 신자 위의 이름 = 하나님 소유라는 도장
4.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은 언약의 종
5. 반역자도 하나님을 드러낸다, 저주로서

> **마태복음 5:33-37**
> 하늘·땅·머리로 맹세해도 하나님 앞이다 → 온 피조물이 이름의 거처
>
>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 성임이요 [36]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 6. 마음판에 새긴 말씀 — 옛 언약의 바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존재 깊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두 번째 표현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장 안쪽 중심, 삶이 선이나 악으로 향하는 기본 방향을 뜻합니다. 가면을 다 벗겼을 때 드러나는 진짜 나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돌판뿐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생각과 동기와 행동 전부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에서, 눕고 일어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에까지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생각할 틈이 없을 때도 말씀이 결정을 이끌 만큼 몸에 배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은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을 의인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지는 않았고, 일부 '남은 자'만 그랬습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을 버린 다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은혜로 주실 날을 내다봅니다. 덧붙여, 각주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다만 예수님께는 '마음에 말씀을 기록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아버지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1. 마음 = 인격의 중심, 삶의 기본 방향
2.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셨다
3. 말씀이 몸에 배어 생각 없이도 결정을 이끌게
4. 구약에선 남은 자만 마음에 말씀이 있었다
5. 선지자들은 은혜로 주실 '새 마음'을 약속했다

> **누가복음 6:45**
>
>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 마음은 인격의 중심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신명기 6:6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7-9

집·길·손목·이마·문설주, 말씀으로 둘러싸인 삶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 119:11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둔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 3:3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시편 37:31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0:7-8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법이 있다

[7]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히브리서 10:5-7 (각주)

시편 40편을 예수님께 적용, 단 '마음에 기록'이란 말은 없음

히브리서 10:5-7 [5]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1:7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에스겔 11:19; 18:31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을 때를 내다봄

에스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8:31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레미야 24:7; 에스겔 36:26; 37:23

새 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예레미야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에스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
> **에스겔 37:23**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7.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편지'

새 마음은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법을 돌판이 아니라 백성의 속에,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선생이 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새 대제사장 직분이 이 새 언약을 세웠고 모세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프레임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들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라봄으로 새 언약에 속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받는 일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더라도 가장 깊은 성향은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쪽입니다. 바울은 문제투성이였던 고린도 교회를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자체가 사람을 통한 계시였고, 바울 사역을 보증하는 추천서였습니다.

1. 새 언약: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된다
2.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새 언약을 세웠다
3. 구약 성도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
4. 넘어져도 신자의 가장 깊은 성향은 순종이다
5. 고린도 교회 = 성령이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 **예레미야 31:31-34**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45; 데살로니가전서 4:9; 요한일서 2:27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선생이 되신다

요한복음 6: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히브리서 8:1-13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새 언약을 세우고 옛 언약은 낡아짐

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3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

로마서 4:3

아브라함처럼 구약 성도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시편 37:31; 40:7-8

마음에 말씀이 있던 구약 의인 =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시편 37:31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0:7-8 [7]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고린도후서 3:2-3

성령이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

[2]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 8. 계시의 목적지, 마음

프레임은 책 전체를 돌아보며 정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해 여러

6장에서 밝혔듯 말씀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는 말을 마음에 일어나는 주관적 사건에도 씁니다. 이사야 53장 1절의 두 질문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은 자연계시도 아니고 정경도 아닙니다. 받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선물로 주어지는 실제 앎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계시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책을 성경에 보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계시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앎은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1. 자연·성경의 말씀은 내 생각과 무관하게 객관적
2. 그러나 말씀의 목적은 마음에 새겨지는 소통
3. 성경은 마음의 앎에도 '계시'라는 말을 쓴다
4. 이 '계시'는 새 정보·새 책이 아니다
5. 마음은 계시의 종착점, 완성은 마지막 날

> **이사야 53:1**
>
> 여호와의 팔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다 → 주관적 계시
>
>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마태복음 11:27**
>
>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계시 → 선물로 주어지는 실제 앎
>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 **에베소서 1:17**
>
> 지혜와 계시의 영 → 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것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요한복음 3:3

주관적 계시를 보여 주는 참고 구절로 저자가 제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7; 고린도후서 4:6

같은 참고 구절(복음 안에 나타남, 마음에 비추신 빛)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15-16; 빌립보서 3:15; 요한일서 2:27

같은 참고 구절(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심 등)

갈라디아서 1:15-16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요한일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 계시의 최종 목적지이다.”

📖 용어

사람을 통한 계시
하나님이 예수님, 선지자, 그리고 신자 같은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언약적 임재
하나님이 약속(언약)으로 묶인 백성과 함께 계시며 복이나 심판으로 관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격적 말씀 모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말을 건네시는 것이라는 프레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그리고 이름)이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약의 종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의 근본 자리를 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을 버린 다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언약입니다. 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객관적 계시 / 주관적 계시
앞의 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자연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뒤의 것은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정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 66권의 목록입니다.

일반계시(자연계시)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앎입니다.

앞의 것은 역사 속에서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뒤의 것은 영원 전에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둘을 구분합니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며, 사실상 그분의 말씀과 같은 말이다.
-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처럼 쓴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성의 강한 증거다.
- 하나님은 세례받은 백성에게 이름과 계시와 임재를 두신다. 그래서 신자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법은 성령에 의해 신자의 마음판에 기록된다.
- 계시는 객관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목적지는 마음이다. 그 앎은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1편 · 종이에서 마음으로 · 설교, 성례, 마음에 쓰기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